



14



30



45

2007.1.2

02 민우ing

02 청소년가 신나는 체육시간, 이제 시작이다 _ 타기

04 운동 -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_ 편린

06 아자, 걸파워! _ 정은지

09 민우칼럼 창 • 여성운동의 기록보존시스템 마련, 시급하다 _ 권미혁

11 제 20차 정기총회와 모람한마당

11 2007년 민우회, 20주년을 즐겁고 화끈하게!! _ 박봉정숙

14 [프롤로그] 발산과 소통의 즐거움, 그리고 연대

15 하나, 핵심요약! 제20차 정기총회

16 둘, 작은 불편, 더 큰 행복! 회원실천 캠페인 - 기꺼이 불편해 지기

17 셋, 회원상 수상자와의 특별 인터뷰 - 이 분들, 궁금하셨죠?

19 넷, 회원의 눈으로 본 총회 - 소다의 정기총회 탐승기 _ 소다

20 쟁점과 현안

20 호樂호樂 캠페인을 추억하며 _ 다라

23 끝나지 않는 사건, 계속되는 질문 _ 이임혜경

26 직군분리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일 수 있는가 _ 최진현

28 국제통산원 • 자식은 마환(麻丸)? - 중국의 출산문화 이야기 _ 최혜선

30 문화산책 - 읽자! 보자! 놀자! • 마법을 부릴 수 없는 「마법사들」 _ 홍하이영

32 평등 사무실에서 • 안식년, 그 후! _ 여진

34 모람풍경

34 서른 즈음에 쓰는 두서없는 낯두리 _ 가락

36 어느 여성주의자의 영어공부 _ 박혜란

40 생협이야기 • 자연주의 생활법 _ 김묵순

42 모람활동

42 [접속 해외사이트 : 그들도 우리처럼] 선택의정서? 그런 것도 알아야 해? _ 바닥

43 모람알림, 회원팀 알림

44 민우알림

44 민우회 20주년 특집 예고편을 소개합니다

45 민우스캐치

46 지부소식



청소녀 프로젝트 - 체육시간을 바꾸자

청소녀가 신나는 체육시간, 이제 시작이다

타기 ●

새해 1월 초 어느 날 서울·경기 일대의 중고등학교에 체육선생님 앞으로 ‘청소녀가 신나는 체육시간을 위한 체육교사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가 배달되었다. 이것은 ‘청소녀 프로젝트, 체육시간을 바꾸자’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길라잡이를 펼쳐 보면, 사회에서 청소녀들이 펼 공간이 없고, 공간이 있어도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편견이므로 이를 직시하도록 안내한다. 일부 선생님들은 청소녀들의 운동 의지부족을 종종 말하지만 민우회가 만난 청소녀들은 운동을 하면서 ‘직접 부딪쳐 깨닫는다’, ‘알이 배겨도 또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다. 체육은 ‘직접 몸으로 느끼고 내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서, 더 많은 청소녀가 하루빨리 이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청소녀의 체육활동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편견 없는 환경을 만들고 청소녀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계기를 만나게 해야 한다. 또한 학교체육이 바뀌도록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체육선생님에게 청소녀 체육활동 인식조사와 여러 번의 간담회를 거쳐 얻은 청소녀의 솔직한 목소리와 체육선생님들의 제안이 담긴 이 길라잡이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청소녀들이 ‘으악’하고 소리 지르며 뛰어보지만 해도 어떤 희열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누군가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를 원하며’, ‘운동기술이 익숙하지 않을 땐 배려해주고’, ‘피구 대신 다양한 종목을 배우고 싶어’ 하는 청소녀의

목소리는 우리 현실이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통한 작은 희열조차 제대로 주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간에 선생님들이 생리와 생리통 등을 모른 척하지 않고, 체육대회가 남들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여자농구, 여자축구 종목도 있으면 좋겠다는 청소년의 소박한 목소리는 청소년에 대해 오해하거나 고민하고 있을 선생님들에게 즐거운 고민거리를 안겨줄 것이다.

체육선생님들이 청소년의 좋은 멘토가 되는 길은 체육시간을 운용할 때 쓰는 작은 팁에서 시작한다고 민우회가 만난 체육선생님들은 얘기한다. 우선, 체육수업에 투기 종목을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호신술 같은 방어훈련을 통해 자기 몸을 조절하는 힘에 대해 느껴보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달릴 때 머리카락에 신경을 쓰는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을 가진 청소년이 있다면 공을 안고 뛰게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아이디어를 내놓아 '어쩔 수 없이' 몰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생님들이 여러 번 강조하는 제안은 '힘을 주는 피드백'이다. 가령 게임규칙을 학생들과 함께 정하고, 팀 내에서 학생에게 지도자 역할을 주어 서로 가르치게 한다면 그 과정은 또래를 역할 모델로 삼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생 하나하나의 체육경험을 듣고, 체육일기를 써서 스스로 목표설정을 하게 하고, 여자스포츠 종목을 관람하는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수업평가를 꼭지로 받으며, 선생님이 동료들과 청소년 체육수업에 관해 함께 논의하여 방안을 찾아간다면 체육시간 그 자체가 훌륭한 피드백이 되어 청소년들이 운동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는 청소년이 운동경험을 쌓고, 청소년 운동장할당제¹⁾ 등 제도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길잡이의 말미에 실린 '피드백 모임'을 활용하여 선생님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못한다고 부끄러워 마라, 선생님도 못하는 종목이 있거든' 이라고 말한다면 청소년은 피식 웃으며 잠자는 자신의 운동능력을 깨울지도 모른다. 지금 청소년에게는 부단한 과정을 통해 '네 몸이 느끼고 땀을 흘리는 과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해줄 사람이 절실하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몸의 건강을 확인하고 만끽하기 위해 운동할 권리가 있음을 다짐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엔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여성차별철폐협약²⁾은 10조 G항에서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확보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서명한 것이 이미 83년의 일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다.

민우회의 '프로젝트'는 끝이 났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체육활동에 대한 오래된 통념도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청소년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을 믿는다. 그러니 선생님, 청소년 모두가 함께 100미터 출발선에서 엉덩이를 세우고 달려보자. 준비~땅! **앰**

타기 ● 나에게 '체육시간 프로젝트'는

어느날 갑자기 '급호출'을 받아 그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한 봉달, 키라, 해송, 편린, 정화샘의 마력에서 헤어지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체육시간 프로젝트 금단증세에 시달린다. ^^...

1)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여성들이 뛰고자 하는 경우 체육관 코트 사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청소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운동장의 1/3은 여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동장할당제'를 고안해볼 수 있다.

2) 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흔히 '씨다우'라고 불린다. 이와 관련한 글이 이번 호에 '여성주의영어자료집기모임-바닥'이 담당하는 '접속 해외사이트 - 그들도 우리처럼'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청소녀 프로젝트 - 체육시간을 바꾸자

운동 -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편린 ●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다들 멋쟁이였다 할 일이 많아 보인다. 한동안 우울한 감상에 젖어있어서 그런지 나를 빼고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잘나 보인다. '예전의 나는 이렇게 않았는데 요즘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니 요즘의 나는 유난히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해보면 자존감은 사람들이 저마다 제멋에 살게 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인데 나는 지금 자존감을 경험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우울함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미용실에서 샴푸를 할 때, 나는 그 미용사로부터 굉장히 케어 받는 느낌이 든다. 나를 조심히 다뤄주고, 행굼을 하는 동안 내 머리를 보듬어 줄 때 상당한 황홀경에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기분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 때때로 미용실에 가거나 네일케어를 받으러 가는 것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기분 좋은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경제적이면서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내게는 '운동하기', '성과 있는 일 해내기', '선의를 행동하기' 같이 것들이 떠오른다. 그중에서 내게는 '운동'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당장 운동을 하고 싶어졌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시절의 여러 경험을 통해 일찍이 '깨우쳤거나 성장했는지 혹은 상처받았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한 사람의 생애 몸의 경험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센터나 운동장, 그곳이 어디든지 '운동'을 하러 나가기까지는 자신을 향한 집중과 성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 마치고 나면 '운동'만큼 자기만족도가 높은 게 또 있을까? 몸을 위해 움직이다 보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여러 감각과 감성들이 깨어난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다보면 호흡의 희열을 느낄 수 있고, 팔다리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면 온몸의 활력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살아있음의 짜릿함이란 까... 혹시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외부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될 때는 영혼마저 맑아지는 것 같아 신이 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엔 나를 위해 이렇게 운동하는 자신이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은 쉽게(의지가 따라준다면)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이 든다.

오늘날까지 자존감 높은 영혼으로 살아온 나는, 어린시절 동네에서 엄청나게 놀았던 경험에서 그 기원을 찾아본다. 흔한 놀이지만 나는 구슬치기, 비석치기, 고무줄, 얼음 땡, 총싸움, 미니 올림픽, 다방구 등과 같은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관계를 맺었다. 비록 애들 놀이였지만 그 시절의 놀이에서 나는 많은 것들(구슬치기에서는 신중함, 비석치기와 고무줄에서는 과감함, 얼음 땡에서는 전력질주와 순발력, 총싸움에서는 넓은 시야, 미니 올림픽과 다방구에서는 전술 전략)을 배웠다. 나아가서 이때 몸으로 경험했던 지

식들은 내가 성장하는 동안 자아를 발견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몸을 통해서 굼직한 '앓'을 경험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태껏 살아오며 자존감을 쌓아왔던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시절의 여러 경험을 통해 일찍이 '깨우쳤거나 성장했는지 혹은 상처받았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한 사람의 생애 몸의 경험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원초적이지만 결국 몸을 통한 경험은 한 사람의 삶-건강, 자존감, 자아정체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술적으로도, 운동을 하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특정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꼭 그러한 기제가 아니더라도 운동은 건강과 움직이는 동안 새롭게 만나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자아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현자가 말하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지 않는가? 자존감도 회복하고 또 다른 자아를 만나서 신나게 살아야 할 나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힘껏 달리며 우울함을 벗어나고 자존감을 높이는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 **앓**

편린 ●

'다양한 움직임의 경험은 그만큼 여성의 삶을 확장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많은 여자와 운동하며 살아가고 싶은 편린.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교육

아자, 걸파워!



정은지 ●

10대 소녀가 꿈에서 깨어난다. 깨어보니 무척 아름다워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쌍꺼풀이 생기다니 그녀의 꿈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친구들은 미팅에 나오라고 하고 과일가게 아저씨는 덤도 준다. 지나가던 남학생들은 그녀의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기도 한다.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영상작품, 유나영 학생의 '미추환몽' 중에서)

민우회에서는 지난 2006년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 '13-18 걸파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13-18 청소년 교육, 10대들 스스로 외모지상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영상작품 제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모 인식 설문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설문 조사하고 가능한 재미있는 강의안을 구성하고 짬이 없는 아이들을 채근해가며 영상을 제작했던 지난 1년은 숨 가쁘고 아찔한 시간이었다. 이제 2006년 걸파워 프로그램을 되돌아보며 민우회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외모가꾸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여성들에게 거울보기는 때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지난 2004년 마르프랑스가 아시아 6개국 여성의 외모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는 21.3%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만족도는 아시아 국가

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시기에 도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여성은 자신이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우가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수치 역시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낮았고 성형 욕구는 53%로 가장 높았다.

여성들에게 비만은 이제 어떤 질병보다 큰 재앙이고 내 몸의 지방은 곧 나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의 자신감을 높인다는 이유로 미용성형 수술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모 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이 비단 성인 여성들 뿐이라.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 걸파워 프로그램은 이런 사회 환경에서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이 성장기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극복하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여 개성을 갖고堂堂히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걸파워 프로그램이 이뤄지기 전 청소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13.7%밖에 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52%는 이미 미용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었다. '외모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95%가 50점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을 통해 청소년 역시 외모가 자신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외모가 이렇게 중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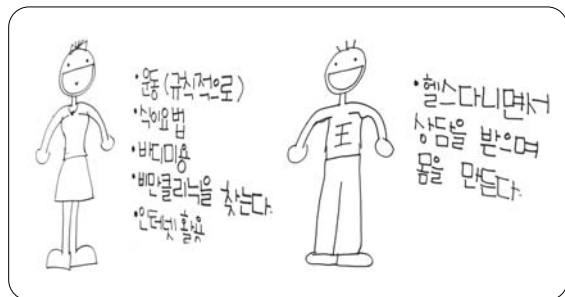
외모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 봤을 때 외모가 중요하다고 느낀다.

청소년들은 '외모로 불이익이나 이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40.4%)', '외모로 성공한 연예인을 볼 때(23.7%)', '외모가 뛰어나 학교에서 인기 있는 친구를 볼 때(16.6%)' 외모가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는 '자기만족을 위해서(37.2%)', '사회생활에 유리하므로(24.3%)', '외모로 주변의 주목을 받고 싶거나 받고 싶지 않아서(21.7%)',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11.0%)' 등으로 답변하였다. 성형수술의 이유에 대해 자기만족일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지만, 외모로 인한 이익이나 불이익, 취업 시의 차별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모 차별의 문제와 10대 연예인의 증가, 또래 문화 속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외모 차별 및 평가 등은 청소년들의 외모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끝난 후, 78%의 청소년은 인식이 변화했다고 답했다. 사람을 외모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로 보게 되었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만족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자신과 친구들의 장점 찾기, 다이어트와 성형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진실 혹은 거짓 퀴즈,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남성과 여성의 몸 그려보기 등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내 안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양한 토론과 참여수업 속에서 아이들은 느낄 수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외에 10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외모지상주의 인식을 극복하도록 하는 영상을 공모하였고 쌍꺼풀 없는 여고생의 콤플렉스를 그린 '미추환몽',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그린 '호모루키스트', 아름다움에



▲ 청소년이 느끼는 남녀의 이상적인 몸

대한 사회적 기준변화를 그린 ‘미’s 꼬레이’ 등이 제작되었다. 또한 ‘미추환몽’의 제작과정을 담은 ‘나영이의 도움닫기’도 교육용으로 제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케이블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영상작품들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외모콤플렉스, 편견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그려내고 있다.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눈이 붓도록 아이참(쌍꺼풀이 지도록 눈꺼풀에 붙이는 테잎)을 붙이는 여고생, ‘예쁜 애가 뭐든 잘하지?’라는 편견을 깔고 있는 에피소드 등은 현재의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다시금 인식하도록 한다.

지난 1년 결과워프프로그램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와 진행팀 모두 구슬땀을 흘렸다. 한 달 여간의 강사 워크숍, 강의시연, 강의안 제출 등을 거의 몰아치는 일정으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이라는 교육의 주제였다. 누군가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외모열풍이 거센 사회에서 교육을 나가는 강사와 진행팀도 우리안의 외모지상주의부터 검토를 해 보아야 했다.

이런 저런 어려움도, 사건도 많았지만 이번 프로그램으로 2,000여명의 청소년들의 마음에 자긍심을 키워주고 외모

지상주의 열풍 속에서도 곳곳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나무를 싹틔웠다는 것은 큰 수확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채용 시 이뤄지는 외모차별에 대한 규제방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었다. 영국에서는 이미 케이트 모스 같은 마른 모델이 10대 청소년의 거식증을 유발한다고 지목되어 사회적 규제가 논의되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도 마른 모델에 대한 규제가 진행된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에서 이뤄지는 외모차별과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절실하다. 누군가가 성형이나 다이어트로 죽거나 한국 여성이 성형을 많이 한다는 식의 흥미위주 보도가 아니라, 성형수술이 그렇게 증가하는데도 외모에 자신 없는 여성이 계속 증가하는 사회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착하고 소중한 것, 이타적인 것도 외모가 결정짓는다고 믿는 사회 속에서 여성, 남성, 노인, 청소년 그 누가 외모가 꾸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할 변화 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소중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왜 사랑하는가이다. 외모가 소중한해서, 훈훈해서, 아니면 몸매가 이타적이어서~? 빛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외모만이 아니다. **엠**

정은지 ● 한국여성민우회 교육팀 활동가
비와 수다를 좋아하는, 로맨틱한 삶을 꿈꾸는 dreamer.

민우회가 어언 스무돌이 되었다. 그래서 20주년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이다. 우리나라 여성운동 역사의 적어도 한 페이지는 민우회가 쓰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나는 스무돌 행사 중에서도 '20주년 운동사 펴내는 사업'을 제일 기대하고 있다.

모든 역사서술이 그렇겠지만 사료가 잘 보관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서사가 나온다. 지난 20년 동안 민우회가 해온 엄청난 일의 양을 생각하면 아이템만 나열해도 A4용지를 한참 넘길 것이다. 거기에 매순간의 치열한 고민과 평가까지 생생한 육성으로 남아있다면 여성운동사에서의 기록적 가치는 상당하리라 본다. 이런 과정은 여성운동 후배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운동사를 정리하면서 보니

아쉬운 점은, 그나마 민우회에선 꽤 남기려고 노력했음에도 1차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펴냈던 기관지, 자료집, 평가서 등을 토대로 집필 위원들이 작업하고 있지만 당시를 복원하기엔 한정된 자료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상당부분 활동 경험자들의 구술에 기대게 되는데 문제는 구술할 당사자들 대부분이 당시의 일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적합한 구술자와 연락이 닿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다.

1차 자료가 이렇게 부족한 데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부의 사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전통도 작용했지만(초창기 민우회도 서대문서에서 담당형사가 수시로 들락거렸었다) 기록을 분류, 보존하는 시스템의 부족도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이런 관리에 비용을 들일 만 한 여유가 우리에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활동의 기록과 보존에는 우선 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보존할 유, 무형의 공간과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오로지 기록만을 담당할 상근자를 둘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단체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찰 만큼 격투에 시달리고 있어 자료수집과 보존은 뒤로 미뤄지기 마련이었다.

올해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가 20주년이며, 평화여성회는 10주년이다. 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은 2년 후 20주년을 맞는다. 또한 올해는 87년 6월 항쟁이후 20년이 되는 해이다. 개인적으로 당시 6월 항쟁 전후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싸웠고 그 성과가

여성운동의 기록보존시스템 마련, 시급하다

권미혁 ●

지금의 여성운동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더욱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사정에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단체에서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본다. 해서 이참에 여성운동의 기록보관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시 고민해 본다. 자료의 기록, 보관에 만만치 않은 자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 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료의 선택 자체에 이미 일정한 철학이 담겨있는 것인데, 자료를 쓸

아놓는 것 이전에 동시대에 같이 운동을 하는 우리들도 자신의 사업에만 매몰되어 여성운동의 각 시대별 점검과 의미부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현재 여성운동은 한편으로는 서로 간의 차이를 드러내며 또 한편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분화하여 가고 있다. 이같은 분화와 다양화가 추세라면 더더욱 여성운동이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선 서로 소통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현재 민우회 20주년 운동사는 그간의 운동사 정리가 대부분 물성적이거나 단일한 범주로서 여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역사적 줄거리를 따라가는 통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몇 가지 주제별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우회 운동의 논쟁사, 리더십, 생활과 지역운동, 그리고 생협, 가족, 노동(노동파트는 따로 떼어 '20주년 여성노동운동사'로 정리되고 있다), 섹슈얼리티와 건강, 미디어운동 등. 이같은 서술방식은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역사기록에 재미를 줄 뿐 아니라 주제에 따라 여성운동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우회운동사가 완결되면 그 성과가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전체와 공유되었으면 한다.



활동의 기록과 보존에는 우선 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보존할 유, 무형의 공간과 여유가 필요하다.

시민운동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오로지 기록만을 담당할 상근자를 둘 수 없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운동사의 집필을 계기로 연말에 민우회의 모든 단위들이 모여 올해 운동을 정리하고 꼭 남겨야 할 자료의 목록을 같이 짜고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나저나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과연 가능한 할까? 그래도 힘들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은 해야 할 것 같다. **암**

권미혁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 대표, 밥과 찌개를 좋아하는 그녀, 빨강색을 좋아하는 그녀, 특히 민우회와 여성운동을 사랑하는 그녀

2007년 민우회

20주년을 즐겁고 화끈하게!!

박봉정숙 ●

해는 어김없이 또 바뀌었고, 올해를 작년보다 더 잘 살아보고자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웁니다. 2007년은 민우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대중여성운동의 깃발을 올린 민우회, 깃발아래 모이기보다 서로가 깃발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과 다채롭고 튼튼하게 엮어보고자 했던 20년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서로의 깃발의 색을 다시 펼쳐보고, 우리의 깃발들이 무슨 색으로 어디로 펼쳐저리게 할 건지 누구와 그 깃발을 나눌 것인지를 돌아보며 새롭게 만들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민우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되, 박제된 기념이 되지 않기 위한 재창조 작업을 모색할 2007년의 민우회, 올해 이렇게 살아 가려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민우회 창립 20주년 활동입니다. 그 의미를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겠죠?...하하하...쩍...) 그래서 87년 민주화대투쟁 당시 창립된 민우회 그간의 활동이 전체 운동에서, 여성운동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많은 여성들이 민우회와 함께 해온 그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과거의 민우회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지금 민우회를 함께하



첫째, 무엇보다도 민우회 창립 20주년 활동입니다.

두 번째, 올해는 조직강화가 필요한 해입니다.

세 번째, 여성비정규노동자 평등노동권확보를 위한 대응활동,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육교실, 호칭문화 개선을 위한 호락호락캠페인² 등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는 사람들의 여성운동과 민우회의 활동에 대한 상과 기대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미래를 구성할 건지가 바로 올해의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누구는 '왜 10년 단위로 무언가를 기념해야 하는가', '왜 21주년 22주년, 혹은 17주년 이럴 때 하면 안되는 거냐?'라며 귀여운(^^)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불평해봐야 소용없습니다. 21주년을 기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이죠. 음냐.

20주년을 회원, 대중들과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5월과 창립월인 9월에 있습니다. 5월 13일에는 건기대회와 팔씨름대회, 전시회 등 민우회 20주년을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행사는 물론 민우회 새동지를 마련하기 위한 커다란 기금행사도 함께 한답니다. 이런 의미있고 재미나는 잔치에 민우회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상암월드컵공원에서 할 예정이니 5월 13일! 꼭 메모해주세요. 지갑도 열어두시구요.(^^) 아침, 민우회 새동지 이야기는요, 현재 종로구 평동사무실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널 공사한다고 매일 불안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세든, 집 장만을 하든 민우회는 올해 집을 구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합니다. 9월에는 20주년의 운동을 평가하고 미래운동을 전망하는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이때 민우회 20년을

기록하고 전망하는 책(섹슈얼리티, 재생산권, 노동, 미디어, 생협, 지역, 가족대안운동, 리더쉽 등으로 구성)과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체계 및 조직내 소통, 대중과의 소통방식 등에 대한 그림그리기를 위해 비전위원회(가칭)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전위원회는 민우회의 조직적 변화 및 분화, 통합, 발전방향을 보다 잘 논의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획, 조직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올해는 조직강화가 필요한 해입니다.

작년 민우회는 정말 쉽이 달려오며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회원확대'라는 기본사업들을 충실히 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부 400명을 포함, 민우회 전체적으로 3,065명의 회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에서 지역여성운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조직강화의 한 해로 만들 것을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무려 5개지부에서 대표들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축하합니다!!) 조직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동감이 넘칠 것이라는 기대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서로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각오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활동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지역에서 '여성' 의제를 발굴하고 여성운동을 확산시켜 가는데 각 민우회 지부가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여성비정규노동자 평등노동권확보를 위한 대응활동,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육교실, 호칭문화 개선을 위한 호락호락캠페인2 등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여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가 모아지는 일상속의 차별문화바꾸기, 성평등의식 확산하기 등의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여성내 차이에 기반한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의제화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정책과 법제도라도 여성이 어떠한 계층, 계급, 상황에 놓여있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릅니다. 그 차이에 주목하여 보다 여성들의 삶에 밀착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예로, 작년 정부의 비정규보호법통과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소식이 여기저기서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성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정규여성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위 모든 사업이 민우회본부(사무처, 부설기관)가 혹은 본부와 지부가 올해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이자 사업내용이지만, 이외에도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설기관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운동본부! 작년 야심차게 부설기관으로

출발하여 1년동안 멋지게 활동한 미디어운동본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미디어운동의 확립을 위해 올해 더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방송통신 규제기구개편', '한미FTA체결' 등 급격한 외적 변화 속에서 수용자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핵심적 활동으로 잡았습니다. 현업과의 연계를 통해 성인지적 방송심의 가이드라인 수정 및 확산작업도 하구요. 작년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했지만 미흡했던 영상제작, R&T 운영을 올해 다시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부설독립 3년차를 맞아 안정기에 접어든 성폭력상담소! 생리주기팔찌 구슬을 꿰는 수공업노동으로 멀티플레이어 상근자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올해는 일상속 성폭력문화바꾸기, 성폭력법정사용문구(공소장 등)에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반영되어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바꿔내는 경·검찰 이렇게 할수 있다 프로젝트(가안), 당당한 성·안전한 성·즐거운성 거리캠페인 등 성폭력적인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만들고 대안을 모색,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해 상담원 모임, 성교육연구모임 등 다양한 영역의 회원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민우회 활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멋지고 화끈한 20주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며 2007년을 희망차게 열어 봅시다. **함**

박봉정숙 ● 요즘 지구의 온난화를 심각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뜻한거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그죠?



발산과 소통의 즐거움, 그리고 연대

2007년 1월 28일, 한국여성민우회 제20차 총회와 모람한마당이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모람한마당'과 함께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총회는 의안 심의와 회원상 수상 등으로 차분히 진행되었으나, 모람한마당은 민우회활동일기 빙고게임으로 시작해 팔씨름대회를 거치면서 열기를 더해 가다가, 각 지부가 열정의 무대를 준비한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에서는 기어이 무대와 관중석이 혼연일체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민우회 홈페이지의 재미난 총회 후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숙소에 둘러 앉아 이어진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야기... 발산과 소통의 즐거움과 그 안에서 의 연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민우회 전망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님을 초청한 '한국사회 진단 및 전망찾기' 강연을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팔씨름 대회 우승자인 장희정 님의 경이로운 팔힘과, 춘천지부 선생님들의 뽀짝이 스커트, 또 사회를 맡아주신 최현희 선생님의 따뜻하면서도 유쾌한 멘트와 지윤정 회원님의 유려한 진행솜씨가 두고두고 화자되었습니다. 자~ 이제, 2007년 민우회의 제20차 정기총회, 그리고 모람한마당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핵심요약!
제20차 정기총회

하나!

총회
1부

- 2006년 사업, 결산(안) 보고와 승인,
그리고 김양희, 김경애 선생님의 꼼꼼한 감사
-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과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님을 신임이사로 선출
- 중앙위원회 구성과 부설기관에 대한 정관 개정
- 김포여성민우회 자진해산 의결
- 2007년 사업계획, 예산(안) 보고와 승인



▲ 정은숙 사무처장의 2006년 사업보고



▲ 이사로 선출되신 조희연, 이인실 선생님

총회
2부

- **감사패 증정** (2006년까지 열심히 활동해 주신 지부 대표님들께)
임선숙 님(광주), 권명애 님(군포), 김인숙 님(동북), 박현조 님(원주), 박영숙 님(생협)
- **평등다지기상**
성 평등 사회를 향한 디딤돌을 놓아주신 정영임 님
- **희망다지기상**
민우회 살림을 풍성하게 해주신 김유임 님
- **함께가는 회원상**
박주경 님(고양), 김영준 님(춘천), 김현희 님(본부), 이원형 님(본부)
- **함께가는 모듬상**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풍물패 '다푸리', 인천여성민우회 '막힘과 트임',
민우회본부 '여성주의영어자료읽기위원회-바닥'



▲ 감사패 증정



▲ 함께가는 회원상(김영준 님)

작은 불편, 더 큰 행복!
회원실천 캠페인
기꺼이 불편해지기

중!

춘천여성민우회가 제안한 회원실천 캠페인 ‘기꺼이 불편해지기’는

-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속의 지혜들을 활용하고
-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 스스로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민우회 모든 회원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실천해 보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2007년 한 해, 기꺼이 불편해짐으로써 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자기 컵 가지고 다니기



●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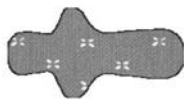
● 내복입기



● 재래시장, 동네가게 이용하기



- 걷기 생활화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한 정거장은 걸어다니기
 -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 면월경대 사용하기



● 장바구니 사용하기



● 일주일의 하루 TV 끄기



● 젓가락 가지고 다니기



● 출신지역, 학력, 나이 묻지 않기



● 열심히 듣고, 천천히 말하기

회원상 수상자와의
특별 인터뷰

이 분들, 궁금하셨죠?!

세!

작년 한 해 민우회를 빛내 주셨던 수많은 회원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연이 궁금한 두 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성차별적 승진체계와 직급정년의 부당함에 맞선 5년간의 싸움과 승소로 성평등의 디딤돌을 놓으신 정영임 회원님, 그리고 총회에서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던 인천여성민우회 소모임 '막힘과 트임' 과의 심층 인터뷰.

평등다지기상

정영임 회원과의 인터뷰

■ 민우회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2001년 12월에 40세 직급정년 규정으로 퇴직하고 나서, 부당하다는 진정을 내었는데 세 차례나 계속 기각됐어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여성단체의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했고, 2004년에 민우회와 만나게 되었죠.

■ 민우회가 도움을 좀 드렸나요?

그럼요,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공론화나 언론 보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협조요청을 한 뒤에 민우회가 처음으로 연 토론회¹⁾인데, 토론회 개최 후에 이 사건을 보는 여러 시각들이 언론에 발표되고 그랬어요. 저 혼자서는 내놓을 수 있는 근거자료에 한계가 있잖아요. 새로운 자료가 없으니까 첫 판례를 뒤엎기도 힘들었던 거고.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나오는 의견들이 제 주장에 대한 새로운 근거 자료가 되어 준거예요. 승소 판결에 그 영향이 컸다고 봐요. 작년 7월에 승소판결이 났고, 8월에 복직했습니다.



■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45세 정년퇴임 규정에 걸려서 또 퇴직한 상태예요. 5년 전 일을 다시 겪어야 할 것 같아요.

■ 민우회와 함께 이러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가요?

여성들의 처지가 많이 개선됐다고들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여전한 것 같아요. 여성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보조적인 역할, 주변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직하고 나서 느낀 건데, 남성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조직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가는데 여성들은 '나이 먹는 것이 죄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요. 이런 분위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인의 일로, '나 하나 참고 말지' 하고 넘어갔던 것이 누적된 결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처럼 그런 것을 참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취급 당해요. 원인 제공을 한 것도 회사고, 부당한 것도 명백히 회사인데, 마치 내가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 상 받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의외였어요. 상은 민우회 활동 열심히 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건데. 나는 오히려 민우회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 미안한 마음도 들고.

■ 민우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우회한테는 고맙죠. 제 생각을 지지해 주고, 함께 목소리를 내줘서 많이 고마워요. 근데 앞으로 또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

1) 민우회는 2004년 10월 7일 긴급토론회 '정영임 40세 직급정년사건, 왜 성차별인가?'를 열었습니다. 정영임님의 사례발표와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직급정년제와 간접차별),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와 김수정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매체에 기사화되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원상 수상자와의
특별 인터뷰

이 분들, 궁금하셨죠? II

함께가는 모듬상 - 인천여성민우회 소모임

‘막힘과 트임’의 이경희 선생님 인터뷰

■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작년 인천여성민우회에서 열었던 ‘여성의 몸, 연극으로 치유여행’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모여 여성주간 공연준비하면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지금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연극하시는 분, 동화구연하시는 분, 민우회 생협에서 활동하시는 분 등 다양해요. 또 다들 ‘막힘과 트임’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여성주간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서 공연하고 있고요, ‘평등한 일·출산·양육 캠페인’ 등 인천민우회나 시민단체의 캠페인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아줌마 문화축제’에서 칠공주 코스프레로 버금상을 타기도 했어요.

■ 총회 때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눈길을 적시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두 달 넘게 준비해서 만든 퍼포먼스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 만들 때 많이 울었어요. 그 안에 우리 자신의 경험과 상처를 쏟아내기도 했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자기치유와 진정성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 다른 작품도 있나요?

‘여성의 막힘과 트임’이라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여성은 태아 때부터 막힘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트임을 향해 가는 내용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딸이란 걸 알면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는 일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막힘을 경험하고, 이 퍼포먼스에서 트임은 상대적으로 적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두 번의 시위나 집회로 문제들이 일소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요. 트임의 과정이 있을 뿐이지, 한 번에 확 풀리지는 않잖아요.

■ 상 받으면서 어떠셨어요?

기쁘죠. 작년에 처음 생겨서 퍼포먼스 공연 시작 한 후로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요. 이러한 격려와 지지가 자기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되네요.

■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두 작품은 여성 현실의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는 면이 강했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밝은 작품을 만들어 표현해 보려고 해요. 인형극도 해 볼 계획이구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와는 1회성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대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문화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지난 해 활동하면서 여성문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여성문화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여성문화센터의 기반을 만들고 싶어요. **업**

갑작스런 인터뷰에 성의있게 응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소다의 정기총회 탑승기 :

운전자의 마음으로 총회에 참가하다

지윤정(소다) ●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 생긴 습관이 있다. 상상 속에서 브레이크, 엑셀을 번갈아 밟으며 내 운전습관을 운전자와 겨루어 보는 것이다. 때로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못 이겨 더 심한 멀미를 느끼기도 한다. 똑같이 차에 올라탔지만 운전자의 마음과 탑승자의 마음은 다르다. 전망과 목표를 갖고 주도적으로 길을 여는 운전자는 멀미를 느낄 틈이 없다.

작년에 맨 처음 총회를 참석했을 때 내 마음은 탑승자였다. 뚜렷한 목적도, 명확한 기대도 없이 '구경 한번 해보자'였다.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축파티의 들러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다.

그에 비하면 올해는 운전자의 마음이었다. 누가 운전하라고 운전대를 넘겨 준 건 아니지만 1년의 모람활동이 내게 스스로를 총회의 운전자로 자리매김 시켜주었다. 각 지부의 동지들은 얼마나 오셨을까, 행사가 재밌어야 할 텐데, 떡은 맛있어야 할 텐데, 주무시는 방은 따뜻하려나... 등등 운전자의 눈으로 보니 챙기고 싶은 게 많아졌다. 작년과 달라진 건 내 마음뿐이었는데 총회 프로그램은 하나하나가 추억이고 감동이었다.

특히 모람세상 한마당에서 각 지부별 장기자랑 시간에는 눈물과 웃음으로 범벅이 되었다. 어설프면 어설프게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서로 소탈하게 웃어제길 줄 아는 너그러움이 가득한 자리, 그것이 바로 소통이고 교감이고 어우러짐이었다. 그 또한 구경꾼으로 보았다면 그리 까르르 재밌고 신났을까? 참가자 모두 운전자의 마음으로 함께 가꾸고 함께 챙겨내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흥겨웠을 것이다.

누구나 다 경험했겠지만 초보운전 때는 라디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운전엔 온 신경을 쓰느라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도, DJ 멘트도 듣지 못한다. 오로지 운전에만 총력을 기울이느라 여념이 없다.

반면 노련한 운전자는 운전하며 음악 듣고 경치 보고 때에 따라 방향도 튼다.

내년 총회에 한 가지 더 바램을 갖는다면 노련한 운전자였으면 하는 것이다. 계획된 프로그램 그 이상의 소통과 의미, 참가자의 마음과 대중의 욕구를 헤아려 반영하는 자리가 되기를, 그래서 운전자 모두 가고자 하는 목적과 전망을 함께 거둬가기를 소망해본다. **앙**

소다 ● 모람한마당 빙고게임과 팔씨름대회 사회를 맡아주신

소다님의 프로그램 진행습씨에 장내에는 감탄의 술렁임이 끊이지 않았는지요?

소다님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민우회원여러분, 총회의 마침과 함께, 드디어 민우회 달력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더 행복하시고, 보람찬 한 해 만드세요~! (상근활동가들의 한해 시작과 끝은 총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회준비로 워낙 바빠, 총회가 끝나기 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휴식을 취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호락호락캠페인을 추억하며

다라 ●



‘여성이 여성에게 쓰는 호칭 바꾸기, 호락호락캠페인’은 12월 말 온라인사이트를 오픈하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호락호락캠페인’은 평소 사용하는 호칭들이 결혼 제도 속에서 불편하게 다가온 경험 사례를 모집하고 드러내어 가족 내 호칭들이 가족관계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가족 내 개인과 개인이 보다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르면 부를수록 즐거운’ 대안 호칭을 함께 찾아보고자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1월 초, 주요 일간지에 캠페인 관련 기사가 실리면서 방문자가 급속히 늘며, 특히 비방과 욕설, 악성 루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논쟁위주의 선정적인 언론보도, 진행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며느리’의 어원 논쟁비화 등으로 캠페인의 취지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제안으로 토론방을 개설하고, 안팎의 부단한 노력으로 어원논쟁과 욕설·비방글의 불길을 잡아 사이트 운영을 정상화 하였습니다.

캠페인 취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게시판 내에 욕설·비방글에 대해 자정노력을 기울여 주신 많은 누리꾼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라인게시판에는 캠페인의 충분한 근거가 되어 준 가족호칭에 관한 생생한 경험과 의견들이 올라왔으며, 호칭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린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쟁점이 되어 ‘다음’과 ‘인터넷 한겨레’ 토론방에서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등 불평등한 가족 호칭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벌써, 옛날 일이 되었다. 빛의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못지 않게 빨리 집중되었다 흠여지는 누리꾼들의 관심이 호락호락 사이트에서 떠난 것이. 하지만 아직도 호락호락 사이트를 접속할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새 습관이 된 긴장과 불안이 마음을 스친다.

출근, 3개월 만의 일이었다. 똥글 처장이 의연하게 ‘이정도 백러쉬(backrush: 여성운동에 대한 역공세)는 예상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충격으로 연신 뻘뻘한 뒷목을 두드렸다. 대표님들이 여유 있게 웃으며 ‘군가산점 폐지운동 때도 대단했었지.’ 하실 때, 나는 이상하게 식욕이 없고 등과 어깨의 원인을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정

말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실로, 대단한 일이었다. 하루 동안에 수백 개가 넘는 글들이 올라오고 실시간 댓글이 달렸다. 상근자들의 출퇴근에 일일이 인사를 건네는(?) 누리꾼도 있었다. 퇴근하면 집에서 맛난 치킨 사드시라는, 게다가 ‘껍질은 벗기고 드세요’라는, 격려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글에 황당해 한 적도 있었다. 댓글에 진지하게 대응하면 내용과 상관없는 조롱과 비아냥이 되돌아왔고, 위트와 재치로 대응하면 ‘장난하냐며 화를 냈다.(—;)’ 대응하지 않으면 논리에 자신이 없는 거라며 또 조롱이 붙었다. 이것 참... 어찌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었다.

대책이 안서는 게시판 상황에 당황하고, 도를 넘어서는 일부 누리꾼들의 공격에 충격받으면서도, 거 참 이상하지, 비상 등이 커진 것처럼 눈은 반짝, 게시판을 모니터하느라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집중하고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나도 결국 ‘그’를 만나고 말았다. 민우회 불박이신, ‘야(夜).근(勤).신(神)’을...ㅠ.ㅠ (이제 그만 물러가라~물러가~! 휘이 휘이~!)

그렇게 호樂호樂캠페인은 나의 민우회 생활에 굵직한 선을 그으며 여러 가지 추억을 새겨 넣었다.

‘야 근신’과의 조우에 못지않게 내게 중요한 사건은, 댓글을 통해 여성운동에 대한 적나라한 사회적 통념과 마주한 일이었다. 물론 잠시 게시판에 뒤덮은 글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세력화된 인식집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렬하고 일방적이었던 첫 만남에서, 이들이 내뱉은 것들 중 일부는 내게 말을 걸어왔다. 대답하려고 애썼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던 몇 가지를 적어 본다.

게시판을 잠시라도 둘러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캠페인이 다루는 내용이 ‘사소하고’, ‘쓸데없는 것’이며 세상에 ‘더 중요한 문제’가 많으므로 그에 더 집중하라는 내용이 참 많았다. 이런 충고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인다. 이 캠페인을 ‘쓸데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자신이 결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서가 아님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이런 ‘쓸데없는’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사회를 바라보는 식견에 있어 우위에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성차별주의자로 판단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즐겨 선택한 만한 ‘비판’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형태의 억압,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 더 중

요하고 사소한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는 분명 오만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판단이 그 억압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외침’을 배제하고 있음을(이런 글의 아래위로 특정 호칭의 사용이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당사자’들의 사례와 주장들이 올라와 있다), 바로 그것이 그 억압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털끝만큼도 성찰하지 못하는 이런 말들은 충분히 불쾌하다. 때로는 노골적인 욕설글보다 더욱.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던 중에 ‘불쌍한 구녕들... 여성부는 뭐하고 있는지 쫓쫓...’과 같은 댓글을 본 적이 있다. 여성가족부든 사회단체든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여성들을 ‘구녕들’로 환원시키는 ‘당신’의 시각이 바로 그러한 참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모른다 말인가.

또한 ‘더 중요한 문제’로 나열된 문제들 ‘미혼모, 자녀양육, 성매매 여성들의 새 삶터 제공...’을 보면,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여성운동은, 여성이 불쌍하고 약한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거나, ‘모성’처럼 자신의 권력에 위협적이지 않은 주제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위협하고 주변의 ‘착한’ 여성들을 몰들

이는 일상적·문화적 성차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을 못들을 것이다.

또 하나는 ‘여자도 군대가라~!’ 이다.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 댓글은 그러나 여성주의적 이슈에 붙는 ‘고정 레파토리’라고 한다. 게시판에서 재미(?)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호樂호樂캠페인이 여성들의 ‘피해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피해의식’의 절정을 보여준 것은 ‘일부 남성들’이었더라는 것이다. ‘여성이 여성에게 쓰는 호칭’으로 캠페인 주제를 한정했음에도, 그 먼 곳까지 일부러 방문해 열성적으로 악플을 달고, 뜬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군대가라~!’를 외치는 일부 남성들의 ‘피해의식’은 실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다. 군대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상흔의 대량생산 공장이다.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고, 다치고, 모욕당하고, 구타당하고, 연인을 잃고,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한다. 게다가 그러한 박탈이 모든 남성들 안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 이 모든 박탈을 고스란히 경험할 때, 또 다른 누군가는 유유히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빚겨나가 연애를 하고, 돈을 벌고, 자존감을 지킨다. 그

러나 너무나 강력하고 절대적인 대상(군대-국익-국가)에 대한 반항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착한(!) 남성들’에게, 결국 군대는 ‘어른’, ‘진짜 남자’가 되게 하는 곳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러한 강박적인 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분노는, 더 쉽고 안전한 대상을 찾아 우회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기피 연예인, 된장녀, 여성운동...

여성들은 사회 혹은 관습(즉, ‘남성들’이 구축한 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를 절대 쉽게 말하지 못한다. 자신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 ‘내가 나쁜 년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인내심이 없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내가 잘못되어서가 아닐까’ 끊임없이 반문한다. 여성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캠페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당함이 구조적인 모순과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느낌’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에 있다.

우리가 지금껏 질리도록 해온 이러한 자학적인 자기검열을 권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여성이슈에 대해 분노를 표현할 때 약간의 자기성찰이 사회적으로 권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른 꿈일까. 지금 자신이 내뿜는 분노의 대상과 이유가 정당

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캠 페인을 진행하면서 여러 분들이 많은 의견을 들려 주셨다. 반가워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은 큰 힘이 되었고, 구체적인 비판과 조언으로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었다.

‘일상’의 옷을 입고 당연한 척 행해지는, 그리고 그 당연함을 재생산하는 ‘말’ 속의 불평등 드러내기는 중요한 이슈이다. 여러분들이 짊어주신 부족함을 보완해, 좀 더 설득력 있는 기획으로 다시 한 번 세상과 마주할 호락 호락 캠페인Ⅱ를 기대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많은 부분 ‘남성’과 ‘여성’을 주어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갑갑하고 아쉽다. 호樂호樂캠페인 게시판에서 보여진 성별 동질성에 대한 강박이 꿈쩍했음에도, 성별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 여성들 간의 차이, 남성들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글쓰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 내게 있는 성별적인 고정관념과 이분법적 편가르기 때문일 것이다. **ㄹ**

다라 ● 한국여성민우회 신입활동가
함여 원고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다른 상근자들 원고 내놓으라고 뒤달리지만 결국 항상 제가 제일 늦네요ㅠ.ㅠ



끝나지 않는 사건, 계속되는 질문

이임혜경 ●

시민의신문 성폭력 사건의 개요

수차례에 걸친 시민의신문 이형모 대표이사의 성희롱에 대해 2006년 9월, 시민의신문 유관단체 간사이던 피해자가 진술서를 썼고, 2004년 11월에 발생했던 시민의신문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형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공문서를 이 진술서와 함께 시민의신문 간부 5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사내에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민의신문 최고 경영자의 성추행사건에 대한 규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직원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직원대책위는 '이형모 사장 사퇴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형모 사장은 전 직원들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 후 수 회에 걸친 이사회가 열리면서 '사표를 수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 표결을 통해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의'되기도 했으나 4회 이사회에서 '이형모 본인이 사퇴 의사를 고수하여 9월 30일자로 대표이사 및 이사직 사표를 수리한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오래 전,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열을 식히지 못해 밤마다 울며 혼자 끙끙대고 고민하며 뜬 눈으로 보낸 적이 있었다. 그 '문제'를 위해 내가 투여했던 마음과 정신과 시간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정도다. 혼동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 사람과의 대면이었다. 그러나 그 상황의 문제점과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을 말로 한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된다거나 고리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건 아니다. 괴로운 상태에서만은 빠져나오고 싶었을 뿐이다.

말문을 열었다.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찾고자 했으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뛰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 감정은 격앙되어 갔고 서러움 같은 느낌이 몰려오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하는 내내 내 눈을 쳐다보는 상대방의 눈빛으로 차분해지는 내 기분을 감지했다. '진심으로' 문제를 듣고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인 듯 했다. 얘기 중간중간 상대방이 던진 말은 이런 것들이다. '그런 의도가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줄은 몰랐다.' 흔히

들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이런 말들이 변명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느껴졌고, 분노와 상처라는 말만으로 뽄뽄 뭉쳐있던 내 마음이 풀어지며 가벼워졌다. 이후 그 사람은 나를 대하는 태도와 생활에서 변화를 갖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읽혔다.

값진 경험이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사과를 받는 것, 무엇보다도 ‘미안하다’는 말의 실천이 이렇게 내 분노와 고통을 가볍게 하고 훌가분하게 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진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때,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에 나타나 있듯이 이형모 전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4명의 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하였고 이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내부 직원들에게 ‘사과’ 공문 발송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6년, 이형모 전 사장은 또 다시 직원을 성희롱 하였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를 한다.

그 당시 이형모 전 사장의 사퇴를 두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내용은 사실 안들어도 비디오

다. 이형모 전 사장의 지인 중에는 사건이 부풀려진 것이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설사 성희롱을 했다하더라도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아깝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너무 한다’는 반응이다. 이렇듯 떠도는 풍문 말고 활자로 드러난 논평도 있다.

‘...이 대표가 ‘성희롱’으로 얼마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과문에 나타난 문맥으로는 그의 사회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 같다. 한 인간이 ‘성희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공인으로서의 생활을 순식간에 종지부 찍어야 할 정도로 이 사회는 정말 건강한지 시민사회단체의 알레르기 현상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은 지난시기 장원 씨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 시민의신문 이형모 대표이사 ‘성희롱’ 관련 사퇴, 문제 있다 (한국인권뉴스 최덕호 대표, 논설주간, 2006.9.14) —

바로 다음 날인 9월 15일에 같은 사람이 또 이형모 전 사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논평을 냈다. ‘사적 분쟁은 가혹한 압력보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뢰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중간제목 아래 이런 내용이 이어진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성적인 사안을 이렇게 처리한다면 법원은 불필요하다.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법적 판단에 의뢰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든 사회적 직무를 포기하게끔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과연 타당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 점에서 C 모간사의 가혹한(?) 요구에 승복한 이 전 대표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다...’

마지막 부분에 이 전 대표를 타박(?)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가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뒤 이형모 전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했다.

‘시민의 신문과 시민운동 종사자들의 명예를 도매금으로 매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시민의 신문 대표이사 사퇴는 물론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그러나 이형모 전 사장은 그 말에 잉크도 마르기 전 10월, 아시아교육연구원 개원식 사회를 보기도 하고 주주총회에 나타나 사퇴를 번복하기도 하고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

는 부끄러운 일을 안했다'며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급기야 지난 1월 9일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1억 8천만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렇듯 앞의 최 논설주장이 걱정만큼 이형모 전 사장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물론 공인으로서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이 사회가 건강하지는 않다. 당신같이 가해자 걱정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이렇게 돌아간다.

자신의 잘못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반성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위 논평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가해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동정적이다. 사건을 둘러싼 주변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감당해야하는 사회적인 부담보다는 한순간 흔들린 가해자의 권위에 대해 더 많은 마음을 쏟아주는 덕분에, 가해자는 스스로를 동정하게 된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한다.

한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형모 전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성 관련 문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사실은 못 밝히면서 상

황만 부끄러운 일로 번지기 때문에 (사퇴를)한 것이다.”

본인은 부끄러운 일을 안했고 현재도 꽤 당당한 듯 보이는데, 글썄, 이렇게 몇 개월 동안의 이형모 전 사장과 그 주변인들의 행적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나는 꽤나 당황스럽다. 그리고 내 시선은 점점 가혹하고 냉정해진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애초 가해를 했을 당시 그것이 ‘범죄’이니 그만 멈추라는 말과 함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이형모가 발표했다는 사과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 당시 당신은 무엇을 사과한 것인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행동은 ‘시민의 신문과 시민운동 종사자들의 명예를 충분히 도매금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뭘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도 알고 싶다. 당신은 반성을 위해 어떤 시간을 가졌나.

사과문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발표’에 끝나지 않고 무게감을 갖기 위해 진심을 담

을때 어려운 일이다. 해야 할 일도 지켜야 할 일도 많고 앞으로 성찰하고 반성할 일도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과’란 그런 것이다. 어디어디를 사임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하지 않고를 피해자나 조직과 합의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알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는 것이 반성이고 사과의 자세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시민의 신문의 복잡한 상황을 만든 것은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당신 때문은 아닌지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라. 스스로 책임지고 실천하는 반성의 시간을! **함**

이임혜경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우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문을 겁니다.

‘그래, 이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
근데 저 성장하고 있는 거 맞아요?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소식지인 [디딤] 통권 42호에 실린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실었습니다.

작년 11월 말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날치기 통과되자마자 이어진 소식은 '우리은행이 3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대부분의 언론은 비정규직 법안의 효과에 빛을 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우리은행측의 '용기있는'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은행식 정규직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크게 고용안정확보와 차별해소에 있다. 우리은행의 정규직화 방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말 이외에 정규직 전환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몇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은행의 정규직화가 고용안정확보와 차별금지·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정규직화는 직군분리를 병행하는 것이다. 직군분리제는 기존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하는 업무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과장이상의 승진은 불가하는 승진체계를 적용

직군분리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일 수 있는가?

최진협 ●

한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승진제한의 경우 역량급제 도입안이라고 해서 4단계 직위체계를 4단계 역량급체제로 변경하면서 자동승진을 일정 자격 취득제로 바꾸고, 승진연한을 늘려 근속에 따른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정규직 하위직위에 대한 업적평가에 비해서도 강화된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임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역량에 따른 차등지급을 통해 저임금을 받도록 제도화시켰다. 즉, 기존 정규직에 비해 훨씬 불이익한 승진제도와 저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직군분리제는 9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은행에서 행원과 여행원을

분리하여 임금과 승진체계를 성차별적으로 운용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지금까지 은행 내 여성노동자는 여행원제도와 외환위기 과정에서 주변화, 외부화 되었고 제일 먼저 비정규직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차별적 직군분리제의 피해효과는 대부분 여성노동자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일차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재편되었던 여성들을 또다시 직군분리제를 통해 승진을 제한시키고 임금을 적게 준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우리은행의 직군분리제를 두고 사라진 여행원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활시킨 것에 다름 아니냐고 묻는 것이다. 여행원제와 직군분리제가 그나마 다른 게 있다면, 여행원제가 '여(女)'



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에 반해 이번 우리은행의 직군분리제는 형식적으로 직무를 기준으로 분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성차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직군분리제를 통해 정규직화의 대상이 되는 창구텔러, 사무지원 직군, 고객관리직군 등의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다. 그래서 그동안 은행은 형식적인 계약을 두어 원하는 만큼 계약갱신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나갔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의 '2007년 7월 이후부터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하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계약기간을 두어 고용해온 관행 자체가 불합리하였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기계약 전환'이 곧 고용안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은행의 '계약직 인사관리개선안(2005. 12. 29)'과 '인사연수제도 개선안 공청회 자료(2006. 7)'에 따르면 3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단축하고, 개인업적평가제와 개인성과급제를 대폭 확대 적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 전환 후에도 계약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우리은행의 '정규직화'가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듯, '우리은행식 정규직화'는 고용안정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될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직군분리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되었던 노동자를 직군 분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양극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그리고 그 양극화의 아래는 여성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은행의 직군분리제를 통한 '정규직화'는 비단 우리은행의 문제만 아니라 제1·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유통부문, 공공부문²⁾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직군분리제가 확대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고착화될 것이다. 따라서 직군분리제가 갖고 있는 차별적 성격이 과연 비정규직, 나아가 여성 차별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최진협 ● 한국여성민우회 상근활동가
비정규직 관련 글을 쓰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흑-

1)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가는 여성 176호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날치기' 당하다」 참조

2) 제주대병원의 경우 '계약직노동자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안에 따르면 '계약직'을 '고용직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용직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재계약은 할 수 있으며, 2년 이후 계약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임금수준의 경우 기본급이 근속년수 9년 이상부터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행본부 주최, "비정규직노동자를 내쫓는 정부 비정규대책" 중 「공공노조 의료연대 실태보고(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자식은 마환麻煩?! 중국의 출산문화 이야기



2007년, 중국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넘는 다. 2000년을 북경에서 맞이하고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2004년 다시 북경에서 1년 반, 광둥성 광저우로 와서 1년 반을 생활하고 있다. 3살이던 아이가 17살이 되었고, 20대에 시작한 중국생활이 40대에도 계속되고 있으니 내 인생도 알게 모르게 중국 물이 많이 들었다. ‘중국생활 어떤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점점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두 번째 중국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한류열풍이다. 북경은 그 사이 한국 사람들의 진출이 두드러져 왕징(望景)이라는 한국타운이 생겨났고, 한국병원을 비롯해 식품점, 입시, 보습학원 등 중국어를 못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었다. 시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추나 열무를 배달해주는 발 빠른 상인이 늘어났고, 소고리, 삼겹살 등 구색을 갖춘 정육점까지 있다.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까지 유학을 오고 있으니 더 말해서 뭐하랴!

지금은 한류스타로 얘기가 이어지는 건 일상이다. 그러나 맨 처음 중국에 왔을 때는 ‘너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달리 아이가 왜 하나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도 중국처럼 강압적인 가족계획(計劃生育)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중국으로 이사 왔으니 중국가족계획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대

답해 웃는 적이 많았다. 마침 아랫집에 중국에서 넷째 딸(셋째가 아들)을 낳은 한국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수영장에 네 명의 아이들이 나타나면 일하던 직원들이 몰려와 신기해하면서 구경하던 것이 기억난다.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아이를 둘 셋씩 낳는 한국여자들을 참으로 대단하다고 찬사를 하는데, 이들에게 자식은 마환麻煩(귀찮고 번거로운!)한 존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거의 30년 동안 인구억제정책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금껏 직장에서도 둘째를 갖게 되면 벌금은 물론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진급에도 지장을 준다. 공산당원은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당에 해야 하는데, 최근엔 가정생활이 원만한 사람이 부정부패가 적다는 통계를 내기도 했다.

한국은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 진출율을 상대적으로 봐야 하지만(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중국은 사회의 양성평등과는 상관없이 출산 억제정책의 효과가 의식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자식은 마환(麻煩)한 존재, 요즘 말로 결혼도 출산도 옵션이다. 도시에선 여자들의 결혼조건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중의병원에서 일하는 내 친구는 결혼 후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한다. 광둥에서 만난 양옌(梁彦)은 10년 동안 사귀어 온 애인이 있지만 결혼과 동시



에 아이문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은 미루고 있다. 또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모든 것이 소황제(小皇帝)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아이에게 집중되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탁아소나 유치원은 중산층으로 올라갈수록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사교육비와 유학비용에 근심이 커지지만 한다. 이로 인한 사회계층간의 상대적 빈곤감도 점점 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7가지 예외규정을 가진 출산정책을 발표했는데, 소수민족, 첫 아이로 딸을 낳은 호적상의 농민부부, 첫 아이가 장애인인 부부, 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혼부부, 외동아들·딸인 부부 등 예외규정을 두었지만, 북경의 경우 60%이상이 둘째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관심조차 없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의 억제를 필요

로 했던 정부는 그 강제적 힘과 더불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지금은 한의사가 된 언니가 인턴으로 일하면서 하소연 하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낙태와 불임이 너무 만연 되어있고, 피임은 모두 여자책임이라 그로 인한 부작용도 다 여자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무슨 남녀평등이냐고... 아직도 농촌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내다 버리거나, 부랑아처럼 호적에 입적 시키지 못한 채 방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변에서 지금껏 같은 말이라도 아이로 인해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둘이면 두 배의 기쁨?’

이렇게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도 충분해!’, ‘너무 많아!!(꺼울러)’이다.

중국은 정책(管)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

은 나라다. 그런 중국이 출산을 저하를 우려해 새로운 출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늘어난 노인계층과 경제발전의 잠재적인 원동력인 노동인력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일상에 깊게 뿌리내린 나쁜 관행들이 쉽게 사라질 지는 미지수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거니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은 이미 지금의 현실이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넌 한국 사람인데 왜 화장을 안 했냐?’이다.

TV를 통해서 수없이 보도되는 한국의 성형수술, 연속극의 고정관념, 성형미인, 화려한 외관을 무조건 따라하고 좋아하는 한류가 유행인 만큼, 우리도 잃어가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된다.

문화교류는 바람직하지만 원치 않는 한파까지 덩으로 쓸려가지 않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최혜선 ● 90년 민우회 생협회원으로 가입한 후, 고양지부에서 생협활동을 했으며 미디어 운동본부에서 미디어 강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거주하면서 민우R&T 중국통신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법을 부릴 수 없는 『마법사들』

홍하이영 ●

현 재 이후에 과거가 올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현재는 미래가 되고 과거는 현재가 되는 것인가. 혹은 과거가 미래가 되어 현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해독불가한 말장난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바로, 지금은 현재다.

분절할 수 없는 시간, 분해되지 않는 시선. 영화 <마법사들>¹⁾의 내용은 이렇다. 자살한 마법사 밴드의 기타리스트 자은을 추억하기 위해 깊은 산 속 구겨져 있는 카페로 밴드 멤버들이 모인다. 카페의 주인이자 자은의 옛 애인인 재성, 자신 때문에 자은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보컬 하영, 그런 그녀를 사랑하지만 주변에서 맘둘기만 하는 명수.

시간은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지만 시선(장면)은 현재를 미루고 과거로 회귀한다. 둘은 동시에 흐른다. 기이한 현상이다.

단 한 번의 컷(cut)뿐인 이 영화²⁾는 마치 인생이 한 컷이듯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특별한 기법도 없다. 영혼이 되어 애인의 곁에 머물며 립스틱을 들어 거울에 글을 쓰던 <사랑과 영혼>이나, CSI 특수 분장팀이 결합했다는 <미녀는 괴로워>에 나올법한 장면이 없다. 오히려 영혼인 자은이, 앞으로 선을 보겠다는 재성에게 꿀밤을 준다. 명수와 재성이 마실 술잔을 선반에서 꺼내준다. 재성의 유머에 제일 큰 소리로 웃는다.

이들은 웃을 바뀔 입과 손수 파우더를 얼굴에 바르고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카페 밖으로 장소를 옮긴다. 그러면 그곳은 과거가 된다. 자은은 여전히 마약

1) 부릴 수 없는 것인지 부리지 않는 것인지 한참을 고민한 결과 그들은 전자였다. 이유는 맨 마지막 문장에서...

2) 컷(cut)은 화면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A의 얼굴을 보여준 후 B의 얼굴이 나온다면 이는 두 개의 컷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카메라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완성되었다. 배우는 1시간이 넘게 진행될 모든 대사와 동작을 다 외워야 하는 것이다.

을 하면서 자해를 하고, 연락두절이던 하영이는 명수와 함께 핫초코를 마시고 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예전의 옷으로 바뀌 입으면 현실이 되고 만다. 노래를 부르며 죽는다는 하영이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겠다는 소심한 명수가 자리에 있다.

감독은 전작의 작품과는 다른 공간에 밴드를 배치한다. 세 여인들이 찾아갔으나 이미 사라진 <꽃섬>이나, <거미숲>의 터널같이 불확실하고 해결되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실존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진다. 정확히는 사람들을 버려둔다. 이곳에서는 그들이 알아서 사건을 만들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하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침범하는 시간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나지 않는다.

애초에 모이기로 한 시간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밤은 점점 진행해가고 명수는 이미 취했버렸을 즈음 휴대폰도 안 갖고 다니는 하영이가 폭설을 뚫고 카페로 들어온다. 능글맞은 재성과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명수를 뒤로 하고 손을 비비며 춥다한다. 난로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녀에게 추위는 자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아쉬움인가, 혹은 후회인가.

여기에 오늘 하산하는 전직 스님이자 전-전직 국가대표 스키선수가 끼여든다. 승복 안에 AUDI가 새겨진 스키복을 입고 재성에게 맡긴 보드를 찾으러 온 것이다. 스님의 차분한 말투가 변신하여 마법사밴드의 노래를 부를 때, 자은을 위한 염불을 외다 중간에 목이 막히는 장면



에서는 정말 폭소가 터져 나온다. 보는 내내 앞으로 옆으로 구를 정도로 웃음이 나온다. 그러나 영화의 유머는 사회비판이나 정치적인 선과 멀고 오히려 일상적이고 사소하다.

살아있을 때는 사과의 아삭거리는 소리에 소름끼쳐 하던 자은이, (옷을 바꿔 입은 후)자신의 제사상에 놓인 사과를 먹는다. 영화 속에서 모든 확실한 존재는 불확실하나, 모든 불확실한 존재는 확실하다. 그렇게 밴드의 추억은 멀리 도망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선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실과 과거의 만남은 옷 하나 바꿔 입으면 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나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과거를 다시 조작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내 능력의 부재는 영화 속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자살한 자은을 막고, 하영이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한다 하고 마법을 부릴 수 없는 이유도 안다. 분절되어 있다면 잘라내서 던져버리면 될 기억들이지만, 아무도 거부할 수 없듯 (누군가의 말처럼) 산다는 일의 상처는 개별성의 훼손에서 오기 때문이다. **앎**

홍하이영 ● 민우회 신입활동가이자 마이더스의 손. 손만 대면 물건이 망가지는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



안식년, 그 후!

여진 ●

멜하바, 찐짜오, 하이, 오하이요, 안녕...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고,

그 시작을 올해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나의 새해 계획이다.

소통의 시작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다수 사람들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맞이 해돋이 이벤트를 통해 시작과 끝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다른 시간테이블을 갖고 살아왔다. 그 다른 시계는 언제나 민우회였다. 적어도 최근 9년 동안. 지난해 사업평가와 올해의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1월에 있는 민우회 총회. 그 준비로 12월부터 1월까지 눈코 뜰사이 없이 보내다 보면 멀리서 들려오는 제야의 종소리는 아침잠을 깨우는 알람시계처럼 시끄러웠고, TV 화면으로 보는 해돋이는 그림의 떡이었다. 마음 한 켠에서는 새해계획을 세워야지 하는 가슴속의 메아리에 대해 언제나 '새해 시작은 음력 설이야' 라고 답하곤 하였다. 남들과 다른 뒤늦은 시작에 대한 조금함과 사라져버린 1개월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총회의 끝남과 동시에 홀연히 종적을 감춘다.

그러던 나에게 2007년의 시작은 이전과는 달리 아주 생소하였다. 2006년 안식년을 끝내고 복귀하는 날이 마침 새해 문을 여는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복귀전이라 묘하게 긴장되는 기분으로 출근 전날 사무실에 들고 가야할 물품을 정리했다. 그동안 길들여진 야행성 생활습관 탓에 지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목욕재개하고, 초등학교 이후 하지 않았던 '가방 싸놓기'를 한 후, '새 나라 어린이'의 취침시간에 맞추어 잠자리에 들었다. 2007년 시무식날임과 동시에 복귀 첫날, 전체 상근자들의 회의(굿모닝 위민링크- 본부 전체 상근자들이 모여 일정을 공유하고 개개인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 혼자 뚱뚱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을 2006년 속에서 살고 있는 상근할

동기들(총회가 끝나지 않은 그들에게 새해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과 ‘과거는 없어요~’ 오로지 2007년의 시작만 존재하는 나. 2007년의 달력은 나에게만 존재하는 듯했다. 마치 400미터 계주를 하는 데 나 혼자만 아주 멀리 앞서와 있는 듯한 생소함이었다. 너무나도 어색하고 생뚱맞아 어리버리한 그 상황에서 문득 나의 새해 계획이 떠올랐다. 그 중 하나는 ‘많이 웃으며 지내기’다.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었고, 함께 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쉽게 기분이 나쁘면 표정이 굳어버리고, 화가 나면 토라져있던 나의 지난 얼굴에 대한 아주 부끄러운 반성의 결과이다. 함께 일하고 지낸다는 것은 함께 활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삶의 자세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삶의 나눔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바로 내가 일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누군가가 웃지 않고 무표정하면 그것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나도 모르게 전염되어 옮기도 하고, 내가 그런 표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나한테 사소하게 취급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사소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삶의 거주’ 공간인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옮고 옮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부터라도 좀 더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고 그러면 민우회에서 좀 더 빠사사~한 기운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먼저 인사하기이다. ‘인사’는 타인과의 소통의 시작이라고 한다. 멀리서 보이는 당신! ‘당신이 거기에 있었군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 시작이 ‘인사’라는 것이다.

여행을 하다보면 현지인들과 맨 처음으로 하는 말이 그 나라의 인사말이다. 뭘하바, 찐짜오, 하이, 오하이요, 안녕...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고, 그 시작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나의 새해 계획이다. 소통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 중요한 것은 말로 시작하는 것이겠지만서도,

무심코 지나쳐 왔던 일상의 나의 모습들에 대한 부끄러운 반성 속에서 올해 내가 만들어가고픈 한해의 모습은 일상에서부터 아주 작고 기본적인 것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과 실천에 옮기는 의지 갖기, 그리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려는 정겨운 얼굴들과 웃으며 격려하기다. 사실 복귀 1주일 후 이러한 나의 생각이 만만치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기도 하였다. 연초 떠들썩했던 그 호락호락 캠페인 때문에 아침에 걸려 온 5통의 욕설 전화를 받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을 떨며 울었다. 불과 한달 사이에 많이 웃으며 지내기가 웃으며 성질내기로 바뀌는 시련(?)을 맞이한 것이다.

터키 배낭여행을 하는 동안 튀르키예(터키) 사람들은 항상 먼저 웃으며 인사하였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웃을 수 있었으며 즐거운 기운이 넘쳐날 수 있었다. 소중한 경험과 배움을 삶을 자세로 익히는 것... 그것이 내가 그곳에 받은 커다란 선물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쉽지 않은 계획이지만 소가 되새김질하는 자세처럼 2007년에는 새해 계획을 되새김질 하며 지켜나가고자 한다. **웃**

여진 ● 사무실에서 항상 먼저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여진. 1년간의 휴식이 만들어 낸 그 넉넉함과 여유가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래요.

서른 즈음에 쓰는
두서없는
넋두리

가락 ●



바야흐로, 새해다. 사실 지난해는 이십대의 마지막 해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특별함이 공존한 한 해였다. ‘다사다난’이라는 진부하기 그지없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일의 측면에서는 ‘프리랜서’란 그럴듯한 타이틀 아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뻥센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 일 없으면 핑핑 노는 불규칙한 생활 속에 돈 제때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는 나날을 보냈다. 때론 돈 때문에 내키지 않는 일도 해야만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정글 속에서 웬만큼 이 세계의 룰을 익히고 나니 다시 매일 출근할 곳이 있는 직장인이 부럽다. 아무래도 새해에는 새 등지를 찾아 날아가야 하나 싶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맺은 새로운 인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민우회와의 만남일 것이다. 사실 그 전까지는 딱히 여성의 관점을 가졌다기 보다는 여러 일들에 대해 부당하다고만 생각했지 행동하지 않은 측면이 더 많았다. 그렇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여성’의 관점으로 보고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가장 단적인 예로는 민우회와 함께 난자 관련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이 가장 큰 부담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있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지만, 후회하지 않을 싸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조금은 발전한 것도 사실이니까.

사실 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알지 못했었다. 일터에서의 부당한 요구와 갖은 행태 등에 대해 힘겨웠지만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의외로 큰 울림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니 무조건 참고 말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난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갖고 있던 피해의식 때문인지 모든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고 주눅 들지 않으려고 도리어 씩씩하고 털털한 척 해왔던 것 같다. ‘내송 따윈 필요없어!’ 를 외치면서 연애 전선에서는 늘 포커페이스로 제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아니면 먼저 치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기 일쑤였다.

얌튼 무언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얻는 것도 없고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 우울하던 차에 어느새 2007년이 다가와 버린 것이다. 마침 하던 일들도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끝이 났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목적지는, 학창 시절부터 가고 싶었던 울릉도. 혹시나 간다는 말만 하고 용두사미가 될까 봐 주변에 여행 떠난다는 광고까지 해댔다. 그렇게 떠난 울릉도는 겨울이라 좀 스산하기도 했지만 번잡한 곳을 싫어하는 내게는 최고의 여행지였다.

기암괴석과 갖은 지형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풍광, 제주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투명한 쪽빛 바다, 파스한 해양성기후와 관광지치고는 후덕한 인심. 낮에는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고 밤에는 민박집에서 〈화성의 인류학자〉라는 책을 읽었다. 혼자 산길을 헤매다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잠시, 살아야 할 이유라기 보단 아직은 할 일이 많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바닥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대인기피는 어쩌면 평생 지고 가야 할 마음의 장애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게 가장 큰 즐거움도, 가장 큰 고통도 ‘사람’ 이지만 무조건 피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새해라서, 서른이 되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리란 기대 따윈 하지 않지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면 나 또한 소중한 존재가 될 테니. 2007년엔 더 많이 웃고 싶다. 물론 민우회와 함께. ㉠

어느 여성주의자의 영어공부

(여성단체에 회비 내면 여성주의자라고 우기는)

박혜란 ●



1995년 4월. 비행기 안

나는 신혼여행 가는 신부. 목은 마른데 승무원은 온통 외국인. 물 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찌나 망설여지는지. 옆에 앉은 남자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취침 모드. 겨우 물 한잔을 부탁하려니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목이 마르다. 음~그래 thirsty! 근데 무슨 발음이었지. 번데기였던 것 같은데. 내 번데기 발음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아니 그냥 쉽게 실례합니다. 물 좀 주세요 해야지. 근데 좀이 영어로 뭐지?’

지금 생각해 보면 쓸데없이 ‘좀’은 왜 영어로 생각하려 했는지? 아무튼 점점 목은 타고 그럴수록 머릿속엔 불이 나고.

‘그래 제일 쉽게, ‘워러 플리스’ 하는거야. 근데 ‘플리스 워러야? 워러 플리스야?’ 와~! 미치겠네’

그날 나는 물은 마셨을까?

2006년 4월. 고양 민우회 사무실

그 후 민우회를 만났고, 여성학 책을 읽으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하는 즐거움에 학구열을 더해 가고 있었다. 여기저기 외부강의도 들으러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알게 된 선생님 몇 분이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유하셨고 나도 그러고 싶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오호~ 통재라. 딱 걸렸어.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네! 중3때 총각 영어 선생님 유학가신 이후로 그 쪽에서는 손 댔는데. 여기서 걸릴 줄이야.ㅠㅠ 그러나 이렇게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여성학을 위해서라면... 그래, 그럼 여성주의 영어책 읽기를 먼저 해서 영어 실력을 쌓자. 아자아자.’

이렇게 해서 회원과 상근자 몇 명의 의기투합으로 지부에

서 국내에 번역본도 없는 여성학 책을 복사하고 소모임도 꾸렸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단어 찾다가 시간 다가고, 겨우 찾으면 문장에 그 놈의 that은 왜 그리지 자주 나오는지. 그래도 억지로 꺾어 맞춰 해석해 놓고 보면 무슨 뜻인지 정리가 되어야 발제를 하지? 점입가경도 유분수지. 아~뜨거운 학구열을 단숨에 식혀 버린 차가운 실력이지!

2006년 9월. △△아파트 10층 1호 서재

'수명 100세 시대가 온다는데, 벌써 포기 할 수 없지.
환갑에 대학원 가면 어때.
혹시 알아? 고려자 특례입학이 생길지.
그 때를 대비해 'I am a woman'부터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아자아자'

이렇게 해서 동네 영어 문법학원 원장님의 주부 특강 3개월을 듣고, 부모님이 수업료 주실 땐 안하던 공부를 내 돈 써가며 하겠다는 몇몇 아줌마들이 분기탱천하여 스터디 그룹을 '또' 만들었다. 먼저 쉬운 책으로 독해 연습을 하자! 책은 멤버 중 한명의 추천으로 알리 맥그로우 주연으로 유명한 영화 'love story'로 골랐다. 영화를 글로 옮겨 놓는 거라 문장은 짧으나 미국식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니 첫 날부터 독해는 안하고 전부 소설가가 되어서 각자 한마디씩... 콧대 높고 똑똑한 여주인공(제니)이 재벌가의 아들이자 하버드에 다니면서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이기도 한 남자 주인공(올리버)과 커피를 마시게 됐다. 제니의 재치 있는 말솜씨 때문에 커피를 사지 않으면 부잣집 명칭이 되는 상황이라(물론 안경을 벗은 제니의 갈색 눈

에 반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커피를 마시려간 두 남녀. 올리버가 제니에게 묻는다.

"왜 내가 마음에 드니?"

제니가 말한다.

"I like your body"

이 대목에 '딱' 걸렸다.

해석자1: 여우같은 여자애가 먼저 꼬리를 치는 거다. 부자라는 걸 알고.

해석자2: 어떻게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한테 몸이 맘에 든다. 어찌구 그래요. 발칙하게. 미국 애들은 좀...

해석자3: 모든 외적 조건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좋다는 뜻 아니예요?

나: '바~디'. 좋은 말이 예요. ㅎㅎ. 이렇게 자기감정에 솔직하다니. 바다... 좋아 좋아.

갑자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나: 아니~, 우리 남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170m도 안되고, 뚱뚱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없죠. 그냥 제니가 멋있게 보여서...

아직 내 정체를 모르는 군. 조심해야지.

2007년 1월 마지막 날 오전

△△아파트 10층 1호 객실

한 달 넘게 소설 쓰는데 지친 나와 그들은 영화를 보기로 했다. 제니가 장학금을 받게 되어 프랑스로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자 올리버는 결혼하자고 한다. 제니

는 학생이란 이름으로는 평등하지만 졸업 후엔 서로 속한 세상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 때 슬픔가득한 눈으로 제니를 간절히 바라보며 올리버는 말한다.

“제발, 제니…”

관객1 : 너무 멋있다. 청혼을 저렇게 하다니. 터프하면서 모성을 자극하는 매력…제대로야.

관객2 : 돈도 많은 남잔데, 같이 유학가면 될 걸.

관객3 : 저런 사랑 나 두 해봤으면….

나 : 아니, 착한 여잔 죽어서 천당 가고, 나쁜 여잔 살아서 아무데나 간다는데. 그냥 유학가지.

관객들은 역시 아무 말이 없었고, 영화는 계속됐다.

올리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두 남녀. 열 받은 올리버 아버지는 학비를 주지 않고, 올리버의 법대 학비를 벌기 위해 제니는 음악을 포기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녹초가 된다. 집에 오면 남편은 공부한다고 방은 온통 엉망이고, 우편물(세금 고지서에 대한 은유적 표현 아닐까)은 보지 않은 채 쌓아놓고 그렇게 사랑하는 제니가 왔는데 눈도 안 맞추고 책에 처박혀 ‘배고파. 밥줘’ 한다.

관객4 : 저 남자 어쩔 저렇게 집중을 잘 할까?

관객5 : 아휴~, 하버드 아무나 가나. 제니 봉 잡은 거지!

관객6 : 우리 아들이 저거 봐야 돼. 여자 친구 생겼다고 공부도 안하고 맨 날 거울만 보고 내 속이 터져요.

나 : 일하는 여성에게 두 배의 노동을 강요하다니.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동네나 이 동네나… 저러니 제 명예 죽겠어?

이번에도 관객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 영화는 계속됐다.

삶에 찌든 제니는 트레이드 마크 같은 빨간색 옷은 입지도 못하고 온통 검은색 바지, 흰색 티셔츠만 입고 나온다.

나 : 빨간 옷 좋았는데…계속 입지

관객7 : 나 학교 다닐 때 빨간 바지 입는 여자는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라서 아무나 입고 다닐 수 없었어요.

나도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장롱 속에 있는 내 빨간 바지가 자꾸 어른 거렸다.

눈치가 있지 여주인공 죽는다고 우는 사람까지 있는데 더 이상 분위기를 깰 수 있겠는가? 영화는 끝났고, 관객8이 아주 조심스레 나에게 묻는다.

“남편하곤 괜찮으세요?”

이번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젯밤 우리 부부 대화가 자꾸 들렸다.

2007년 1월 마지막 날 빼기 하루 전 날 밤, 우리 집

내용이 열 받게 해도 영어는 해야지. 아자아자.

공부하는 내 책을 힐끗 본 남편.

“고3 때 독해 그 책으로 우리 학년 전체가 다 했는데 여주인공이 우리들 여신이었지(뭘 상상하는지, 누구를 상상하는지 황홀한 표정이다). 어~ 사진도 있네 한 번 보자”

그 소리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남자들의 여성에 대한 환타지의 결정판이지.
청순하면서 섹시하지. 똑똑하면서 순종적이지.
도전적이며 차분하지. 자기 장학금도 포기하고
돈 벌어 남자 학비 대고 살림까지 다하지.
시아버지하고 뉘 떨어져 남편 사이 화해도 시키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말한다)
“일찍 죽어주기까지 하잖아. ㅋㅋㅋ”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에... 당신은 변호사도 재벌도 아니지.
난 음악전공도 아니고 당신 공부 끝나고 만났고.
반대는커녕 마흔 다된 노총각 구제 해준다고
시부모님이 감사해 하는 결혼 했으니까
난 일찍 안 죽을 거야. 아니 못 죽어”
“아니 딴 뜻은 아니고. 그 사랑아...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다고”
“아름다워? 아름답지! 잘 됐다. 나 공부 계속할 꺼니까
당신 돈 벌어 내 학비 대고 공부에 집중 할 수 있게
살림도 해라. 진짜 아름답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07년 1월 마지막 날 오후. 이 글을 쓰면서

제니는 죽는 순간까지 베트남 파병 용사가 돌아오는
얘기하고(끝까지 고상하게), 자신의 프랑스 유학 반대
한 것에 대해 올리버가 죄책감을 가지면 죽어서 귀신

될꺼라고 협박하고(끝까지 멋있게), 꼭 재혼하라고 그
래야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다고 신신 당부하고(끝까
지 아랑있게) 환자 같지 않게 건강하고 예쁜 얼굴로
죽는다.

나야 산 사람인데도 얼굴이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으니 저렇게 죽을 수는 없고, 다니라는 직장도 결혼
했으니 다닐 수 없다고 때려 치웠고, 나 죽은 후에 재
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이 세상일 왜 신경 쓰겠어. 온
세상 차비 없이 구경 다니느라 바쁠 텐데...

근데 나의 목표는 영어였지. 여성주의 공부에 방해되
네. 분석하지 말고 단어 외우자. 애 학원에서 오기 전
에. 아자아자!!

제니가 아이를...임신한 ; impregnate, 난공 불락의 ;
impregnable

이건 또 뭐야!!! 임신하면 난공불락이라고!!!

아~ 단어도 못 외우겠다.

박혜란 ● 닉네임은 평안이에요.
고양 지부에서 성폭력 상담원과 성교육 강사 활동 하고 있어요.
'분열하는 주체'는 아름답다를 금과옥조로 받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열하는 주체가 평안을 찾는 길은 멀고도,
힘하다는 걸 시사각각 느끼며 살아요.

자연주의 생활법

김묵순 ●

각종 유해한 물질로 인해 교란된 인체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자연에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오랜 세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왔었다.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여 인체를 구성하였으며 해충(인간의 관점)과 먹이경쟁을 통해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시켜 왔다. 하지만 짧은 시간(200년) 내에 5배로 증가한 인간은 지금까지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던 막대한 양의 합성 화학물질을 생태계에 방출함으로써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 진실과 정의는 이윤추구가 최대 목표인 시장논리에 밀려 퇴색해 버린다. 독성실험을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이 소비자의 거센 항의에 밀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시장에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체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물질이 과연 안전한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안전하다고 계속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합성 살충제인 DDT도 처음 사용할 당시엔 기적의 물질로 칭송받으며 노벨상을 거머쥐지 않았던가.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을 계기로 DDT는 인체의 생체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물질로 규정되어 1970년대 후반 대부분 선진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저개발국가에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유기염소계 농약인 DDT는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기화되어 바람과 구름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생물을 오염시키는 데, 극지방에 사는 물개나 곰의 체지방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포유동물에 만성적인 독성을 야기하는 이 물질은 대표적으로 남자의 정자수를 감소시킨다. 예로 1930년대와 2000년대 30대

남자의 정자수를 비교해 보면 75% 감소율을 보인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이다. 여성의 경우는 호르몬의 균형에 더욱 민감하여, 무기력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되기도 하고, 숙명으로만 알고 견디는 월경통 또한 환경호르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로졸 타입의 에프킬라만 보더라도 ‘페메트린’이라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섞여 있다. 이러한 물질이 호흡을 통해서 인체로 흡수됨으로써 먹는 것의 1,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띤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었는가.

독성물질을 인체가 해독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한데 요즘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합성 물질들은 그 양과 수가 너무 많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욕심으로 합성해낸 물질들을 생활에서 줄여나가는 길밖에 도리가 없다. 자연주의 생활법은 우리 할머니 세대가 어릴 적 살았던 시대의 삶의 방식을 떠올려 최대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결코 쉽지 않겠다. 많이 번거롭고 불편하겠지만 하다 보면 습관이 붙어 나중엔 아주 익숙해진다. 합성샴푸를 쓰지 않고 비누를 사용하고, 치약

대신 소금을 이용해 보자. 방향제와 방충제(나프탈린, 향균제)를 없애자. 모두 유기인제 농약으로 만들어진다. 화장품에도 환경호르몬 물질과 유해한 물질이 첨가되어 있다. 되도록이면 생협에서 공급하는 천연물질로 만든 화장품을 사용하자. 새 옷은 여러 날 햇빛에 널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날려 보내고 입자.



덧붙이자면 해독을 도와주는 물질을 가까이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숲은 유해물질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힘이 있다.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숲의 마이너스 전자가 복구시킨다. 아픈 현대인에게 더없이 좋은 물질이다. 또한 식물은 만병통치약처럼 인간에게 작용한다. 1m이상, 잎이 넓은 식물을 실내에 6개 이상 배치하면 유해물질을 흡착하고 좋은 물질을 방출해 준다. ②

김목순 ● 생협의 자연주의 생활법 전도사
생협 홈페이지의 “함께 카우는 아이”를 클릭하시면
김목순님의 생생한 “아토피 극복 노하우”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요.

선택의정서? 그런 것도 알아야 해?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이번에 소개할 사이트는 UN산하 여성지위향상국(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홈페이지 중 'CEDAW' 페이지(<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이다. 이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CEDAW news'라는 글상자를 잘 살펴보면 'the Republic of Korea acceded to the Optional Protocol on 18 October 2006 (대한민국이 2006년 10월 18일에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이라는 소식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라는 것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그 나라의 성차별을 시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의미이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 주의 깊게 주목하거나 보도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흔히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일컬어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을 읽고 넘어가야 한다. 이 조약은 1979년 제34차 UN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것으로서, UN이 1967년 제22차 총회에서 채택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조약은 1981년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한국은 1983년 일부 조항을 유보한 채 89번째로 서명하였다. 이 조약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여성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조약이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정부는 자신들이 이 조약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4년마다 보고서로 제출하며, 그 나라의 NGO들 역시 별도로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NGO 보고서(이를 'shadow report'라고 함)를 제출한다.

그렇다면 CEDAW와 선택의정서는 무슨 관계인 걸까? 선택의정서는 CEDAW에 가입한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한 국가가 CEDAW에서 보장하는 권리나 의무를 위반했다면 UN에서 차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이 의정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하거나 협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국 국민 혹은 당사국 관할권 내에 있는 외국인이 직접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the communications procedure)'와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당사국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절차(the inquiry procedur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선택의정서는 2007년 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CEDAW에 위배되는 여성차별사안을 국내법의 모든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판단하지 않았을 때, UN에 진정하거나 혹은 UN에서 직권조사함으로써 다시 한 번 차별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UN 사무총장에 한국 사람이 당선된 것보다 우리 일상에서 더 중요한 사건이다. 일례로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민우회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기억이 있다. IMF와 함께 한국의 여성노동계를 강타했던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우선해고 사건. 이 사건이 2002년에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후 민우회에서는 선택의정서의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하여 UN에 진정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한국은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이 때 진정이 가능했다면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역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알고 활용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길을 갖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영**

모람 알림

‘다소 - 이 단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연재를 마감하며...

지난 일년 동안 ‘여성주의 인권모임 - 다소’는 1·2월호 ‘처녀생식’을 시작으로 3·4월호 ‘학부형’, 5·6월호 ‘집사람’, 7·8월호 ‘착한몸매’, 9·10월호 ‘산부인과’, 11·12월호 ‘성차별적 속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버려야 할 성차별적 단어를 모람활동에 연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쓰이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단어들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꿔내기를 바라는, 그래서 단어만이 아니라 생활 속 성차별 또한 바꿔보려는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민우회의 ‘생생 프로젝트’에 함께 활동하였고, 12월에 민우회를 널리 알렸던(?) 호락호락 캠페인의 모태(^^;;)가 되었다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단어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깊이 남지만 우리 모두가 익숙한 것들에도 눈을 부릅뜨고 다시 보는 평등감수성을 키워나간다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모임에서 새롭고 재미있는 활동과 이야기들로 채워 주시리라 믿으며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넘깁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소 ●

회원팀 알림

새로운 회원팀을 소개합니다~!

회원확대 400명, 대학생서포터즈 ‘당당한 스무 살’, 민우 회원이 만나는 날, 신입모임, 다양한 회원 소모임, 민우번개 등으로 회원들과 함께 어우러질 장을 펼쳐려고 합니다. 올 해는 신나고! 즐겁게! 되도록 자주 모여서 모람(회원)과 함께 할 2007년의 회원 조직팀의 정겨운 얼굴들입니다.



날 리

날고픈 오리, <날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멋진 살사댄스를 보여주기도 했지요, 작년부터 회원팀에서 활동했던 중견(?)으로 사람관계에 능수능란합니다. 교묘하다고나 할까? 불의를 참지 않는 정의파로 늘 깔끔한 일처리(혹은 뒤처리)를 보여줍니다. 쾌활한 성격만큼이나 재치 있는 말투의 소유자

● 어색한 포즈, 뽀샵이 진한 이 사진으로 넣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악을 쓴 고집쟁이



홍하이영

<홍하> 혹은 <이영>이라고 불립니다. 전기 아깁다고 곤 멀티탭이 민우회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 서버를 다운시킨 전적이 있지요. 아직까지 회원과의 통화에 찢찢매며 땀을 둀습니다. 남 일하는데 방해하기 일인자로, 몸 생각해서 늘 싱거운 도시락을 싸고 다니지만 간식으로 과자와 빵을 주로 먹는 독특한 정신세계.

● 고 3때 사진. 이때도 검정머리아. 풀린 눈과 송충이 눈썹이 인상 깊군요.



서민자

올해로 민우회와 10년을 함께한 영광의 <심지상>수상자. 작년 휴직기간동안 터키 등지를 여행했습니다. 회원팀에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일을 자처하는 열의를 보여 팀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지요. 느긋느긋한 말투로 꼼꼼히 일하는 스타일. 10주년 기념으로 새로 별칭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민우회 20주년 특집 예고편!

올 2007에 민우회가 스무 살을 맞는 것 다들 아시죠?
함께가는 여성에서도 민우회 스무살을 맞아 야심찬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다.^^ 본격적인 기획기사는 다음 호(3·4월 호)부터 5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획 1 웃어라, 여성!

‘여성주의를 하면 까칠해 진다?’
‘까칠함’을 넘어 자기를 긍정하고 세상을 살아내는 힘·소통의 힘 키우기!
성찰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 진솔한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 하나, ‘페미’로 산다는 것, 그 달콤쌔쌔함에 대하여
여성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방만한(?) 토크!
- 둘, 자매애는 있는가
여성들간의 차이와 소통, 그리고 자매애의 앞뒷면.
- 셋, 행복지수를 높여라!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 넷, 여성운동, 위기와 변화 사이에서
변화된 사회, 변화된 세대에서 여성운동의 전망.
- 다섯, 그녀들의 새판짜기
운동의 안팎에서 자유롭게 자신과 공동체의 대안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기획 2 민우 역사 기행

민우회 20년 역사에서의 히트작들을 사진과 함께 돌아봅니다. 화제가
되었던 사업, 캠페인, 그리고 그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추억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2007 편집이루미 소개

2007년 함께가는 여성과 함께해 주실
편집이루미입니다~



맨발 권수현

2006년에 이어 올해도 편집이루미에 남아주신 아
이디어 만땅의 출석모범생이죠. 맨발님의 성실함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겨레신문 ‘아!
한국사회’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오 이인화

맨발님의 꼬임에 이끌려 살짝 발을 들이셨다가 바
로 다음 모임에 짙짙한 연재 기획서를 가지고 오서
야 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러나 그러한 이오님을
만난 것은, 홍보팀으로서의 엄청난 행운!^^ 지금 여
성신문사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도리 김희정

9·10월호의 ‘똥귀저귀 폭탄’ 이야기를 기억하시나
요? 맛깔난 글솜씨에 남다른 감각! 전 민우회 상근
자이기도 했구요, 지금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미오 최정은영

전 모람지기 출신(?)의 팔방미인 로미오가 편집이
루미에 합류합니다. 기획력! 추진력! 활동력! 무엇하
나 빠지는 구석없는 그녀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현
재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민우회 정책위원으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반성폭력 징검다리 건너기', '성폭력 리플을 달아라' 등 체험식 프로그램을 통한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06년 11월 28-29일 유중중학교



● 2006 미디어바로보기교육 평가 워크숍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평가 워크숍을 마치고 카메라 앞에 선 든든한 미디어 교육분과 선생님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을 올바른 수용자로 이끌어 주십시오.

2006년 12월 5일



● her心탄회 스무살의 모놀로그

한 해 동안의 희노애락을 허심탄화하게 마음껏 발산하는 자리! 회원들과 함께한 송년회는 우리들의 20살 사진전, 모임들의 재미있는 활동발표, 베틀시장과 다양한 축하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6년 12월 9일

● 푸른미디어상 시상식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푸른미디어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거센 상업화의 물결속에서도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지상파 방송의 역할을 지켜나가고 있는 제작자들에게 용기와 긍지를 가지도록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2006년 12월 14일, 서울 YWCA 강당



●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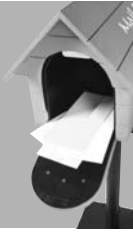
활동방향에 대한 간담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2007년 민우회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06년 12월 21일

지 부 소 식

www.womenlink.or.kr



고양여성민우회

꿈틀이 개소식

- 일시 : 3월 30일(금) 늦은 3시
- 장소 : 꿈틀이 공간
- 내용 : 꿈틀이의 개소를 축하하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과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 프로그램 : 개회, 길놀이 및 고사, 지부대표 인사말, 센타징 및 교사소개, 꿈틀이 경과보고, 앞으로의 계획

성폭력 상담원 교육

- 일시 : 3/7~4/27일까지
- 장소 : 고양여성민우회 교육장
- 내용 : 제 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시작됩니다. 상담원교육 후 상담실습 및 교육기간을 거쳐 본 상담소에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31-907-1003)
- 교육대상 :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사람, 가정폭력 보호시설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의 90%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대보름 잔치

- 일시 : 3월 4일(일) 정월 대보름 오후
- 장소 : 미정
- 내용 : 풍물굿, 고사, 달집 태우기, 강통 돌리기, 풍성한 먹거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제 7차 정기총회 보고

1월 26일(금)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회원한미당으로 시작해 2006년 사업평가 및 2007년 사업계획안 승인과 임원선출을 하였습니다. 선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대표 : 안진, 전진숙
- 이사 : 정인경, 임선숙, 김기태, 장미경, 최선자, 최영, 허선자

성교육강사 모임/성교육 신입강사모임

- 일시 : 2월 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본회 교육실
- 내용 : 2007년 성교육 방향을 정하고 지역 내에서 역동적인 성교육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지역내 중고등학교에서 완소녀(완전소중한강사)로 통하는 성교육 강사팀 파이팅!!

2월 정세교양강좌

- 일시 : 2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본회 교육실
- 내용 : 회원 및 활동가 대상으로 매달 1회 정치정세, 여성주의 담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회원과 활동가들에게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과성상담소 자원상담원 교육

- 일시 : 2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본회 교육실
- 내용 : 섹슈얼리티 강의, 여성주의 상담 등의 교육을 통해 상담소 자원상담원을 양성하고 여성주의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을 합니다.

임원 활동가 수련회

- 일시 : 2월 14일(수)~15일(목)

- 장소 : 담양 테라스
- 내용 : 새로 구성된 임원들과 상근, 비상근 활동가들이 의기투합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활동가들 마음속의 벽을 허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 반편견 교육을 위한

한부모가정지도사 양성교육

- 일시 : 2월 20일(화)~23일(금)
- 장소 : 본회 교육실
- 내용 : 한부모 가정지도사를 양성하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성학 스터디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본회 교육실
- 내용 : 2월 교재는 복지국가와 여성정책(새물결)입니다. 현재 8명의 회원과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구요 언제든지 문의 열려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재미에 한번 빠져보시죠.

군포여성민우회

- 대안생리대 만들기 (2월 14일(수))
- 회원 차마시는 날 (2월 26일 또는 27일)
- 군포지역 활동가 워크샵 (2월 21~22일)
- 여성학 강좌, 마을모임, 성교육강좌 (일시·장소 미정)

※ 자세한 내용은 군포민우회로 문의바랍니다.
Tel : 031)396-0201

서울 남부여성민우회

신입회원만남의 날

- 일시 : 2월 1일(목) 10시30분

- 장소 : 남부지부 사무실
- 내용 : 얼굴 익히기, 생협 생활재 바로알기, 환경수세미 뜨기

회원만남의 날

- 일시 : 2월 8일(목) 10시30분
- 장소 : 남부지부 사무실
- 내용 : 건강한 밥상
(자연주의 요리법의 기본 - 김목순)

신입회원만남의 날

- 일시 : 3월 2일(금) 10시30분
- 장소 : 남부지부 사무실
- 내용 : 얼굴 익히기, 생협 생활재 바로알기, 환경수세미 뜨기

정월대보름 놀이 한마당

- 일시 : 3월 4일(일) 늦은 7시~9시
- 장소 : 개포동 근린공원 (양재천변)
- 내용 : 전통놀이 마당

회원만남의 날

- 일시 : 3월 8일(목) 10시30분
- 장소 : 남부지부 사무실
- 내용 : 건강한 밥상 (강사-김목순)

서울 남서여성민우회

강서양천시민연대 신년하례식

- 일시 : 2월 7일(수)

녹색가게 교복교환전

- 일시 : 2월 23(금)~24일(토) 11시~3시
- 장소 : 양천구청

남서민우회 풍물패 남서누리(강서구)와 독서모임2에서 함께 활동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 사무국 2643-1253

인천여성민우회

“막힘과 트임” 공연

- 일시 : 2월 24일(토)
- 장소 : 대방동 여성플라자
- 내용 : “평등한 일·출산·양육”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공연

회원의 날

- 일시 : 3월 23일(금)
- 장소 : 미정
- 내용 : 소모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이야기 한마당, “기꺼이 불편해지기” 운동 활성화

원주여성민우회

강원여성연대 자문위원, 운영위원 회의

- 일시 : 2월 5일(월) 낮 12시
- 장소 : 원주여성민우회
- 내용 : 창립 초기의 강원여성연대의 조직 강화와 안정화를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각단체 대표들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총회준비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강원여성연대 제1차 정기총회

- 일시 : 2월 7일(수) 2시
- 장소 :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 내용 :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기총회인 만큼 회원들의 참여와 2007년에 대한 결의로 총회를 성사시켜 강원여성연대의 발전과 연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회원의 날

- 일시 : 장소 : 미정
- 내용 :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을 만

나보고 회원들간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진주여성민우회

FTA여성실천단

- 일시 : 1월 29일 부터 매주
- 내용 : 공부 한주, 거리캠페인 한주

경남여연총회

- 일시 : 2월 13일(화)
- 내용 : 2006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진주여성민우회 생협/축구단 명절 판촉

- 일시 : 2월 설날 전후
- 내용 : 생협 - 설 판촉 당번을 정하고 매장 운영, 축구단 - 재정마련 방안으로 설 유과 판매

새내기학부모교실

- 일시 : 2월 22일(목)
- 내용 : 주민자치센터와 해아해아공부방이 초석초등학교 교사와 입학생 보호자들과 함께 새내기 학부모로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도움을 나눕니다.

운영위원워크샵

- 일시 : 3월 10(토)~11일(일)
- 내용 : 2007년 운영위원과 상근활동가들의 워크샵

춘천여성민우회

강원여성연대 총회

- 일시 : 2007년 2월 7일(수)
- 장소 :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독자마당

삼색모람

- 일시 : 2월 13일(화) / 3월 13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달팽이공방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생협 정기총회

- 일시 : 2월 10일(토) 오전 10시
- 장소 : 도봉여성센터 강당
- 내용 : 2006 사업 및 결산(안) 승인, 제2기 임원 선출, 2007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07 차입금 한도액 결정, 정관 개정(안) 승인
- 문의 : 동북여성민우회 생협 (02-3492-7140)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 지원 '십시일반'

- 일시 : 2월 14일(수) 오전 10시
- 내용 :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과후 교실에 월 1회씩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직접 간식을 만드는 활동을 하지 못해도 간식비 후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 하나은행 592-910054-76607 김미혜
- 문의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dbwomen@pama.com)

정원대보름 놀이 한마당

- 일시 : 2월 25일(일)
- 장소 : 미정
- 내용 : 동북민우회 풍물패 '다푸리'가 펼쳐내는 풍물과 더불어 회원들과 신나게 어울릴 놀이마당을 벌입니다.

제1차 운영위원 워크샵

- 일시 : 3월 9(금)~10일(토)
- 장소 : 봉도수련원
- 내용 : 우리의 활동내용과 조직, 활동 방식에 대한 진단을 하고 중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회원이 민우회의 주인입니다.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마당'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oe@womenlink.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웃어라 민우회! 민우회원 생활백서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 ① 민우회에 대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
- ② 민우회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낸다.
- ③ 천원이든 만원이든 사알~짝 회비를 올린다.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여성운동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과 애정으로, 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열려있는 자세와 성찰하는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정강자 선생님.



2006년 연말, 큰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금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도 민우회에 큰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회비를 UP! UP! 해주셨습니다.

이숙경, 소현아, 안현숙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준혜 황미라 지현주 이해리 최나리 송혜라 신혜선 전현주 박홍주 노정림 오정현 변혜정 이유라 이인화 박은영 정진옥 김경남 김현정 김미선 이상극 강화숙 라운주 장경민 이승영 장영미 이선형 심은덕 유태범 장수형 김정호형 김종희 김선민 강현미 손은정 임치순 장향순 김현자 이종하 민성희 조윤정 이학래 이광근 오은영 윤영선 최태산 이지영 이영례 강미자 민정자 최금주 서준희 이해옥 이혜순 구재문 조민행 이성준 박미경 이은정 한혜진 정정희 구윤신 김명화 석애경 안미란 박요순 이은주 전경희 이귀연 원미정 이국란 국가인권위자료실 동덕여대도서관자료실

(2006년 11월 11일~2007년 2월 1일)